2015. 3. 5.
말씀 : 김삼환 목사

구름 기둥, 불 기둥

기도의 손
(출 17:8-13)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완전히 타락하고, 본성이 변질되고, 쓸모없게 되고, 무가치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에 전심전력하고, 교회 생활에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천년만년 우뚝 서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도 이루어지고, 잃어버린 원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고전 10:31, 고전 6:20, 고후 5:17, 창 1:27-28, 롬 5:17-18)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새 시대 /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축복과 영광 / 창조주 하나님과 사귀는 은총 /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사랑을 받는 행복한 삶 /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주 만물, 국가, 개인의 부귀, 영광, 생명을 손에 잡고 계신 하나님의 지원과 인정과 은혜를 받는 특별한 삶 /

이 모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창 28: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 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 43: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교회로 달려가 종을 치고, 불을 켜고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멀고 힘들어도 변치 않고 한 손에는 기도, 한 손에는 교회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수천 번 맞고 핍박을 받아도 변치 않았습니다. 도시에 나와서 공부할 때도, 군에 가서도, 친척집에 가서도 이 두 기둥은 꼭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슬퍼하거나 절망치 않았습니다. 항상 굶고 다녀도 마음에는 여유와 기쁨의 샘이, 가슴과 머리에는 희망이 넘쳤습니다. 새벽을 깨움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새벽같이 밝혀주셨고, 명성교회 개척 후 35년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이 엄청난 기적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직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고, 교회 사랑, 교회 중심으로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이것이 저의 전 재산이요, 저의 소원입니다.

시 27: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1. 많은 사람이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주일을 잘 지키고, 교회에 잘 다니다가 잘되면, 그 흘리던 슬픈 눈물이 마르면 세상 죄악에 눈을 뜨고, 교회와 멀어지고, 마귀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어렸을 때 잘 믿던 학생들도 커서 잘되면 정욕과 음란과 쾌락에 빠져 성전을 멀리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1977년 42세로 사망)는 교회 찬양대까지 섬겼으나 성공한 후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 8:12-14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2.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모든 저주가 문을 두드리고, 모든 좋은 것은 떠나가고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믿음의 불도, 사랑의 마음도, 은혜와 축복, 성령의 불도 꺼집니다.

출 17: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출 30:7-8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를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손이 내려오면 영육의 위기가 옵니다. 다 내려갑니다.

3. 인간은 힘과 능력이 있어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기고, 감당하기에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조금 지나면 하향곡선을 그으며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렘 17:11)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 갈수록 새 힘이 솟아나고 더 큰 축복과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 40:30-31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수 14:11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벧전 1:24-25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렘 17:7-8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4.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멀리하는 인간 중심의 지식, 물질, 권력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인본주의의 유혹을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모여서 사람의 힘으로 쌓은 바벨탑, 예쁘고 멋지고 잘난 사람끼리 만나서 행복하려는 노아시대의 동물적인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결혼 문화, 롯의 인생관을 버려야 합니다.

겉만 화려하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진 영적으로 죽은 교회, 목회자가 지식과 학력과 외모가 뛰어나고 멋진 설교를 해도 기도의 무릎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기도 없는 목회, 이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이것이 목회자의 비극입니다.(삼상 16:7)

창 6: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 11: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 13:10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창 13:13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5.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이 험한 광야, 이 험한 바다의 풍랑을 극복해야 합니다. 뱀과 전갈과 살인 더위와 메마른 광야, 태풍과 비바람을 극복하고 이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삶을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을 인간의 방법과 힘으로 피하려 합니다. 쉽게 살려고 합니다. 좋은 곳에 별장을 짓고 노후를 평안하게 보내려 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결혼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쉽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어떤 광야도, 어떤 바다의 풍랑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 이길 수 있고,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값진 보화, 저 천국의 영광은 어려움, 고난, 시험, 위기, 환난을 통과하는 자가 누립니다. 기도의 손을 드는 사람은 아말렉, 사자굴, 풀무불이 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시 28:1-2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 27:3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시 22:20-21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